

## 한국인 관상동맥 질환에서 C-reactive protein의 원인적 연관성에 관한 환자-대조군 연구

김영식, 박혜순, 민원기\*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 \*진단검사의학교실

**연구배경:** 최근 관상동맥질환과 관련하여 흡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이외에 C-reactive protein (CRP)이 새롭게 독립적인 위험인자라고 보고되고 있으나 국내에서의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환자-대조군 연구를 통해 한국인의 관상동맥질환 위험인자로서 CRP의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997년 1월부터 8월까지 서울 일개 대학병원 심장내과에 입원한 남성 환자로 관상동맥조영술상 50% 이상의 협착조건을 보여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이 확인된 84명을 환자군으로 선정하였다. 대조군은 1999년 3월부터 4월까지 동일한 병원의 건강검진센터에 내원한 남성 중 허혈성 심질환이 없는 성인을 대상으로 대조군과 연령군별로 짝짓기하여 84명을 선정하였다. 모든 대상자에서 혈압, 신장, 체중 등의 신체 계측과 혈당, 혈중지질 등의 혈액검사, 그리고 자가 기록에 의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관상동맥 위험인자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CRP는 Cobas Integra 700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CRP의 기하평균은 관상동맥 질환군에서 0.23 mg/i로, 대조군의 0.10 mg/i 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P < 0.05$ ). 다변량분석 후에도 CRP는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을 증가와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는데, 제1분위에 대한 제3분위의 교차비가 4.40 (95% 신뢰구간 1.08~18.00), 제4분위의 교차비는 14.30 (95% 신뢰구간 3.27~62.60)이었다. 이외에 고혈압(교차비 3.69, 95% 신뢰구간 1.33~10.24), 당뇨(교차비 10.47, 95% 신뢰구간 2.53~43.33), 낮은 HDL 콜레스테롤(교차비 4.24, 95% 신뢰구간 1.08~16.65)이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주(교차비 0.20, 95% 신뢰구간 0.07~0.56)는 유의한 방어효과를 보였다.

**결론:**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혈 중 CRP치의 상승이 관상동맥 질환의 독립적인 위험요인일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중심단어:** 관상동맥질환, C-reactive protein, 위험요인